

에폭시 레진몰탈 바닥재

에폭시 칼라 수지몰탈 / 에폭시 투명 수지몰탈 | ER-601 / ER-605M

ER-601 / ER-605는 Epoxy Resin과 Poly amine 변성 경화제 등으로 조성된 2액형 칼라 수지 몰탈 바닥재 도료입니다. 1회에 5~10mm까지 시공이 가능한 에폭시 칼라 수지 몰탈 바닥재로서 접착력, 내구성, 내수성, 내마모성,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에폭시 도료입니다.

▶ 주용도

- 공장 바닥, 빌딩, 아파트 주차장 바닥
- 전자부품, 정밀기계 공장 등 방진 및 내구성을 요구하는 곳
- 학교, 병원, 연구실험실 등 소음 방지를 요구하는 곳

▶ 특 성

- 외관이 미려하고 매우 위생적입니다..
-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보수도장이 용이합니다.
- 1회에 5~10mm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.
- 내수성, 내구성, 내약품성이 우수합니다.

▶ 일반적 성질

※모든조건은 표준상태(20℃ 상대습도65%) 기준임

항 목	품 명	ER - 601(에폭시칼라수지몰탈)		ER-605M(에폭시투명수지몰탈)		비 고
		주 제	경 화 제	주 제	경 화 제	
외 관		녹색 및 주문색	미담황색	미담황색	미담황색	JD-F-201
배 합 비		3.5	1	4	1	-
혼합비중		1.45 ± 0.1		1.10 ± 0.10		JD-F-110
혼합점도		1,000 ± 300		800 ± 300		JD-F-104
가사시간(min)		40 ± 20		40 ± 20		JD-F-405
건조 시간 (hrs)	지속 건조	60 ± 20 (분)		60 ± 20 (분)		JD-F-404
	경화 건조	24 ± 4		4 ± 1		JD-F-404
경도(Shore D)		80이상		80이상		JD-F-301
인장 강도(N/mm ²)		21.5 이상		25.5 이상		KS F 4923
압축 강도(N/mm ²)		44.1 이상		49 이상		KS M 3015
굽힘 강도(N/mm ²)		44.1 이상		49 이상		

▶ 이론도포면적 ▪ ER-601 - 규사(8kg)+ER-601(2kg)/m²(5mm기준) / ER-605M - 규사(8kg)+ER-605M(3kg)/m²(5mm기준)

▶ 포장단위 ▪ ER-601 - 주재:경화제=18.7kg:5.3kg / ER-605M - 주재:경화제=20kg:5kg

▶ 사용방법

▪ 배 합

1. 주재와 경화제를 규정한 배합비(3.5:1) / (4:1)로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ER-601 / ER605M을 균일하게 혼합합니다.
2. 배합용기는 MORTAR MIXER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몰탈재의 주재와 경화제는 배합비(3.5:1) / (4:1)에 맞도록 정량 포장되어 있으나 시공 장소, 일기, 기타 조건에 따라 소량씩 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울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하여야 합니다.

▪ 교 반

1. 주재와 경화제를 혼합 후 MORTAR MIXER를 사용하여 규사에 혼합 도료가 충분히 코팅되도록 교반한다.
2. 가사시간에 유의하면서 MIXING 시간을 조절합니다.

▪ 도 포

1. 흡손을 이용하여 가사시간 이내에 퇴로를 고려하여 도포 순서를 정한 후 도포를 완료합니다.
2. 몰탈재는 일반적으로 희석치 않고 사용하나 저온에서는 혼합불량 작업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정용제(SE-300)를 1~3% 첨가하여 작업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 시 경화불량, 강도불량, 크랙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▶ 주의사항

- 이 도료는 반응형 2액형 도료로서 지정된 비율(제품 포장 전면 배합비)로 혼합하여 사용하십시오.
- 가사시간이 지난 제품은 부착성이 떨어지고 제반 물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양만 배합하여 사용하십시오.
- 신너 사용은 작업조건에 따라 1~3%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도장 기구는 헤라 등 넉적한 주걱을 사용하십시오.
- 동절기 사용시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이 길어짐으로 충분히 경화 후 재도장 하십시오.
- 제품선정에 따른 층간박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선정시 문의 또는 사용 전 실험 바랍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기술자료집이나 연구실로 문의바랍니다.

▶ 시공 사례도

사례도

시공조건은 일반적인 시공방법이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

